

『宜田記述』을 통해서 본 陸用鼎의 開化思想

白 承 鍾

I. 머리말

II. 陸用鼎의 學問과 『宜田記述』의
著述

III. 『宜田記述』의 內容

IV. 陸用鼎의 開化思想

V. 맺음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houghts of Enlightenment" of Yuk as represented in a three Volume work, written in Old Chinese between 1884 and 1888.

He was born into a gentry family who lived in Chŭngchŭng Province during the Yi-Dynasty. He did not gain recognition during his lifetime. He never served in the government with exception of 2 years from 1894~1896. Yuk kept close company with such leaders of the "Thoughts of Enlightenment" as Kim, Yunsik(金允植: 1835~1922).

A possible motive for Yuk writing these books may have been preparation for his appointment as a policymaker in the government. We may also assume that he felt it necessary to put his opinions on the urgent problem of those times, "Westernization", in writing after the unsuccessful Coup d'état of Kim's Progressive Party.

Uichonkisu consists of three parts. Part I includes his critical proposal about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the King and scholar-officials, based on Confucianism. In part II, he proposes some methods for reformation of the institutions in the military, education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reas. In the last part he explains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and stresses the necessity of learning western sciences and techniques.

The most areas of his work are contained in the third volume.

Briefly said, his proposal was to adopt the western scientific knowledge whilst maintaining the frame of confucian morality intact. Yuk differed from the other members of his group in the following aspects: He respected protestantism, and was deeply concerned for the constitutional monarchy, as the Progressive Party was.

I. 머 리 말

陸用鼎(1843~1917, 號는 宜田)은 舊韓末 忠淸道 靑山縣의 학자로서 아직 일반에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¹⁾ 그는 中年에 잠시 參奉을 지낸 적이 있으나 그 밖에는 줄곧 草野에 묻혀 지냈다.²⁾

地方의 일개 이름없는 학자였지만 陸은 당시의 時局에 대하여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듯 하다. 이 점은 그의 저술인 『宜田記述』에 대한 당시대인들의 평가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을 저술한지 3년 뒤인 1891년(高宗 28) 陸은 당시 忠淸道 沔山에 流配 중이던 雲養 金允植(1835~1922)에게 책의 序文을 부탁하였다. 金은 그 요청을 수락하였음은 물론 이와 별도로 「宜田記述評語三十四則」이란 長文의 평론을 쓰기까지 하였다. 평론의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1) 陸의 本貫은 沃川이고 字는 致禹, 初名은 在坤이다. 그의 號는 宜田을 비롯하여 龜石, 弘毅齋, 月岡 등이 있다(『宜田記述』 卷 3, p. 87a, 『宜田文稿』 卷 2, pp. 18b~20a). 그의 거주지를 정확히 밝히자면 忠淸道 靑山縣 西面 望月里(현재의 忠北 沃川郡 靑城面 望月里 月坪)이다. 陸은 51세 되던 1894년(高宗 31) 봄 東學亂을 피하여 서울로 이사하였다. 당시 서울에는 養子 陸鍾允이 濟衆院 主事에 재임 중이었다. (『沃川陸氏大同譜』(1928年刊) 5冊, pp. 63a~64a, 『宜田文稿』 卷 1, p. 38a. 『官報』 1894. 6. 25日字)
- 2) 陸은 上京하던 해에 西五陸의 參奉으로 官階에 진출하였다. (당시 陸鍾允은 參議交涉通商事務 승진) 그런데 1896년(建陽元年) 2월 11일(陰 1895년 12월 27일) 俄館播遷의 여파로 外部交涉局長의 職에 있던 陸鍾允이 俞吉潸, 趙義淵 등과 함께 日本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일로 陸의 짧은 官職 생활도 끝이 났다. 그는 당시 徽慶園 參奉이었다. (『宜田文稿』 卷 1, p. 38a, 『官報』 1894. 6. 21日字, 鄭喬의 『大韓季年史』上(國史編纂委員會 1957) 建陽元年 正月 丙申條)

我東之各國通商 已有年矣 今中外能說外國事者 頗有之 然未有如此(宜田記述)通融貫徹 眞有用之才 有用之學³⁾ (※ ()안은 筆者註— 이하 같음)

즉, 陸用鼎이 외국의 사정에 능통한 유용한 인재이며 그 학문 또한 쓸모가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 밖에 黃泌秀(生卒年未詳)가 1901년에 쓴 跋文을 보면,

陸子宜田(用鼎) 其爲人也魁梧 其爲書也當瞻 縱橫數千言 包括萬有 其於經濟治平之策 巨細不遺 雲養金公(允植)之序 贊之不已者 固可⁴⁾

라 하여, 陸이 經濟 治平에 뛰어난 학자이며, 그에 대한 金允植의 평이 옳다는 것이다. 陸이 시국에 대하여 뛰어난 식견을 지닌 經世思想家이었음이 미루어 짐작된다.

陸用鼎의 사상을 살핌에 있어서 본고는 특히 그의 저술의 하나인 『宜田記述』의 분석에 큰 비중을 두려고 한다. 다만 논지 전개의 편의상, 우선 그의 출신 家門과 학문적인 배경을 간략히 검토하게 된다. 이어서 『宜田記述』의 저술 동기와 내용 등을 분석한 다음 陸의 사상 특히 開化思想의 몇가지 특징을 究明해 볼까 한다.

II. 陸用鼎의 學問과 『宜田記述』의 著述

陸用鼎은 신분상으로 보아 靑山縣의 土班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⁵⁾ 그의 집안은 햇수로 300년 이상을 靑山에 터를 잡아 살았고, 또 그 동안 官職에 나섰던 이가 드물었다. 入仕하였던 陸의 조상 중 비교적 이름이 알려졌던 이로는 陸世英(1480~1508)이 있다. 그는 燕山朝의 武臣으로 野

3) 『續陰晴史』上, (國史編纂委員會, 1960) 卷 5, 「沔陽行日記」, 高宗 28년 2월 17일條

4) 『宜田記述』(普成社, 1912) 卷 3, p. 88a

5) 土班이란 여러 代를 벼슬하지 못하고 한 지방에서 불박이로 사는 지체가 낮은 兩班(鄉族)을 뜻한다(『漢韓大字典』, 民衆書館, 1966, p. 274).

인의 토벌에 功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陸의 가까운 조상들에 대하여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 들이 벼슬을 하지 못했고, 그 밖에 祖父 陸相機(1799~1833)가 理財에 능하였다는 매우 단편적인 사실만을 아는 정도이다.⁶⁾

陸의 父 陸炳奎(1811~1849)도 역시 관직에 나가지 못하였다. 그는 錦谷 宋來熙(1791~1867)⁷⁾의 門下에서 受學하였는데 學者로 불릴 정도는 아니었던 듯 싶다.⁸⁾ 陸의 집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武人家로 행세하여왔다고 한다.⁹⁾

부친이 비교적 일찍 他界하였던 관계로 陸의 양육은 모친 星州李氏(1816~1880)가 혼자서 떠맡게 되었다. 그래도 그의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다. 5代祖 陸命遠(1694~1776)이 장만하였던 家財가 祖父 陸相機代에 또 증식되었기 때문이다.¹⁰⁾

요컨대 陸用鼎은 忠淸道 靑山縣의 士班 地主 출신이었다. 그는 武人的

6) 陸의 모친 星州李氏의 行狀에, 吾聞汝父 汝之五世祖同樞公(陸命遠)以俞樞公(陸微夏)之支子 始立門戶 其始也 家無饌石 艱難辛楚備盡嘗之 同樞公服勤積勞 頗立庄園 至汝大父(陸相機)又稍潤之(『宜田文稿』卷 2, p. 24b) 라 한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7) 宋來熙는 충청도 일대에 널리 알려졌던 儒學者로 學行으로 천거되어 벼슬이 大司憲에 이르렀다. (『大德郡誌』, 大德郡誌編纂委員會, 1979, p. 912 참조)

8) 「本生考曰蓮府君行略」에 보면,

嘗問于先妣(星州李氏)曰 府君何如人 妣曰……汝父尚節義 恢廓有大志 不甚喜讀書 嘗曰 大丈夫 當使後人 記傳吾之行蹟可也 安可碌碌事刀墨 爾古人之陳述乎(『宜田文稿』卷 2, p. 19a)

라 하였다. 요컨대 陸炳奎는 책 읽기를 싫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붓을 드는 일이나 經典의 학습 등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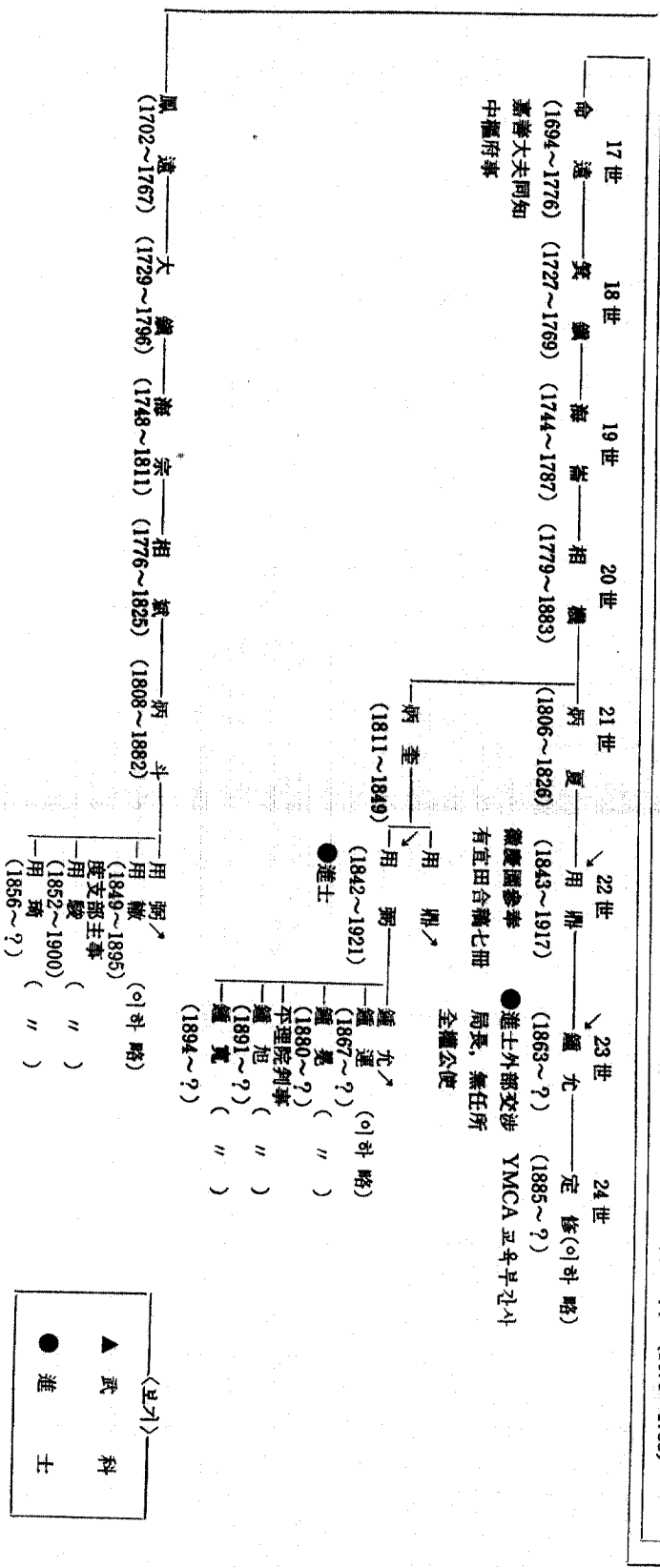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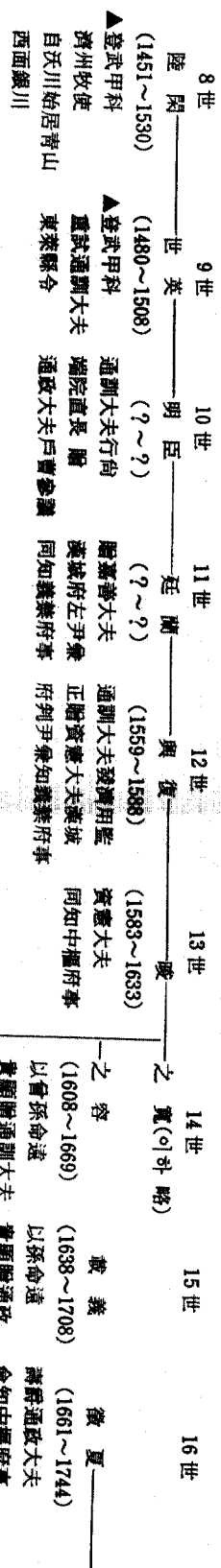
9) 武人家門이었던 陸의 집안(靑山의 牧使公派)에서 본격적으로 儒學을 연구한 이는 族祖父 陸相贊(1763~1800)가 처음이었다고 한다(앞의 책, 卷 2, p. 14a).

10) 집안이 부유하였다는 사실은 陸用鼎 자신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감지된다. 雲谷舊第宅 頗爲巨創 人或謂大家舍(앞의 책, 卷 2, p. 25b)

즉, 雲谷에 위치하였던 옛 집은 규모가 커서 사람들이 큰 집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1896년에 아들 陸鍾允이 日本에 망명하기 전 까지만 해도 陸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뒤로는 家勢가 서서히 기울어 老年에는 靑山의 田畠을 거의 다 내놓게 되었다 한다. (앞의 책, 卷 2, p. 30a)

〔陸用鼎의 家系圖〕(『沃川陸氏大同譜』, 1928 刊 참조)



전통 위에 새로이 儒敎的 素養을 쌓기 시작하였던 그러한 家門의 일원이었다.

다음에는 그의 學問에 대하여 알아 보자. 일단 陸의 師友 관계부터 살펴 보는 것도 그 한 방법일 것이다.

스승에 대하여는 모친인 星州李氏의 行狀 가운데,

栢雲處士李公秉善 先妣(星州李氏)之私親從弟也 先君曾邀致居隣… 栢雲叔主 亦清修謹敎 選于學而篤于行… 吾之學 雖未成 亦賴此文而知方向¹¹⁾

라 있듯이 外從叔父 栢雲 李秉善(?~1824)의 지도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序號」를 보면,

余昔最少時 詩號以霞石爲之此 則因棄不用 其後遊於鼓山(任憲晦)先生 門下 賜余號以弘毅齋 近年遊於錦芸(朴(某))先生 以月岡賜號余焉¹²⁾

라 하여 당대의 저명한 性理學者 鼓山 任憲晦(1811~1876)와 錦藝 朴先生을 師事하였음도 알 수 있다. 朴 錦藝에 대해서는 관계 사료를 뒤져보았으나, 유감스럽게도 그 實名을 찾을 수 없었다.¹³⁾ 朴을 포함하여 陸用

[표 1]

陸用鼎의 스승

姓 名	本 貫	居 住 地	官 職	號	生 卒 年
李 秉 善	星 州	忠清道 靑山	(없 음)	栢 雲	?~1874
任 憲 晦	豐 川	忠清道 公州	成均館祭酒	鼓 山	1811~1876
朴 (某)	?	忠 清 道	侍講院諮議	錦 芸	?~?
姓 名	受學期間	陸用鼎의 나	學問의 특징	備 考	
李 秉 善	1849~1874 (25)	6~31	性理學, 天文, 算數, 醫卜 등	陸用鼎의 外從叔	
任 憲 晦	1875~1876 (1)	32~33	性 理 學	梅山洪直弼(1776~1852)의 門人	
朴 (某)	1879~? (?)	36~?	性 理 學		

11) 앞의 책, 卷 2, p. 23a

12) 앞의 책, 卷 1, p. 18b

13) 金允植의 「宜田幽居記」를 통하여 朴이 侍講院 諮議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續陰晴史』上, 卷5, 「西陽行日記」, 高宗 28년 12월 3일條 참조)

人	道																			
	李景略	青	山	蒼石																
	李○○	青	山							(少府)										
	朴仲五	青	山	巷樵																
기타	朴○○			海嶠						郡	守								時事에 관심이 많음	
	安小晚		黃白	海川																
	朱○○		威威	鏡山																
中人	宋君明		京	蘇合															九里街의 藥장수	
僧侶	東隱																		土家子弟	
	布昕		公	州															東鶴寺의 僧	
	尙經		公	州															東鶴寺의 僧	
弟子	金碩彬			充齋																
	李○○		京(?)	海雲						(金吾)										
	章○○		京(?)							校書郎										

註: 1) 경우에 따라 字일수도 있다.

2) ○표는 敬稱을 뜻한다.

3) ○, ×표는 각각 긍정적, 부정적 입장을 표시한다.

鼎의 스승 들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위의 표에서는 李秉善과의 관계가 특히 주목된다. 그로부터 陸은 무려 25년 동안이나 受學하였던 것이다. 外從叔父이기도 하였던 李의 祭文에서,

余於公(李秉善)不啻自幼受學之惠 余以本以早孤 餘生無他依歸 憲賴公之庇護 以至成就 存保家業 延于至今者 此莫非公之力 公之澤也 永言長思 百世難忘¹⁴⁾

이라 하여, 陸은 受學의 은혜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하여도 감사의 뜻을 적고 있다. 李秉善의 영향이 여러 모로 적지 않았다고 짐작된다.

이에 비하여 任憲晦와의 관계는 불과 1년 밖에 지속되지 못하였다. 또 朴錦藝과는 연령상 다소 늦게 시작된 관계라고 느껴진다. (당시 陸은 36세). 陸의 학문에 미친 이 둘의 영향은 별로 대단하지 않았던 것 같다.

李秉善의 학문에 대한 다음의 기록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公稟賦超邁 氣像嚴重 志節正直 見識高朗 其於格物透理 多有發前人所未發 言前人之所未言 又有創物之智 製器之才 如所著 天道論 蓍三百 筭數醫卜 玉衡 水車等 屬 皆臻精妙¹⁵⁾

즉, 그의 학문적 관심은 그 영역이 넓고 깊어 性理學은 물론 蓍三百(天文), 筭數, 醫卜, 玉衡(渾天儀) 및 水車 등속에 이르기 까지 독특한 내용의 저술을 남겼다는 것이다. 李에게는 創造의 지혜와 製器의 재주가 있었다고도 한다. 추측컨대 그는 실용적인 문제들에 관심이 컸던 학자가 아니었나 한다. 李의 학문적인 입장은 18·19세기의 實學者들 가운데 특히 利用厚生學派와 맥이 통하는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¹⁶⁾

14) 『宜田文稿』, 卷 2, p. 29b

15) 앞의 책, 卷2, p. 28b

16) 주지하다시피 實學은 李瀾(1681~1763)을 비롯한 經世致用學派와 洪大容(1731~1783), 朴趾源(1737~1805(?)) 등의 利用厚生學派 및 金正喜(1786~1856)로 대표되는 實事求是學派로 대별된다. 이 중에서 실제 생활에 이용될 수 있

다음에는 陸의 交友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宜田記述』(3권 3책)을 비롯한 그의 저술들, 예컨대 『宜田文稿』(2권 2책) 『宜田詩稿』(1권 1책) 및 『宜田續稿』(1권 1책)에서 친분이 있었다고 믿어지는 인물 들을 뽑아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크게 나누어 보면 陸의 友人들과 제자로 구별되지만 전자는 편의상 다시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됨직도 하다. 즉, 數名の 開化派 관리들, 무명의 시골 학자들, 그리고 中人 및 승려들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온건 개화파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金允植(1835~1922), 魚允中(1848~1896)을 비롯하여 『燕巖集』을 최초로 간행하였던 金澤榮(1850~1927)¹⁷⁾ 獨立協會의 간부로 활동하였던 鄭喬(1856~1925)¹⁸⁾ 『新式儒胥必知』의 저자 黃泌秀¹⁹⁾와 『農政撮要』의 改訂者였던 李建初(年代未詳)²⁰⁾가 이에 해당된다.

中人이나 승려들이 友人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도 또한 흥미롭다. 그 관계가 어느 정도로 긴밀하였는지를 분명히 알수 없어서 다소 유감이지만,

는 天文과 機械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利用厚生學派였다. 특히 洪大容 같은 이는 당대 최고의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였다(千寬宇, 「洪大容 地轉說의 再檢討」(『曉城趙明基博士華甲紀念論叢』, 東國大出版部, 1965), pp. 643~649).

17) 金澤榮이 『燕巖集』(9권 3책)을 간행하였던 것은 1901년의 일이다. 그의 實學에 대한 관심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18) 鄭喬는 1898년(光武 2) 2월 본회의 書記와 提議를 역임하였다(『大韓季年史』上,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料叢書 5, 探究堂, 1957) p. 176, 183 참조). 그의 사상과 활동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蘇英珠, 「秋人 鄭喬의 政治 社會思想研究」(연세대 碩士論文, 1982)

19) 醫術과 儒學에 모두 능하였던 黃泌秀는 『方藥合編』, 『達道集註大全』, 『評批斥邪說』 및 『新式儒胥必知』 등을 저술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新式儒胥必知』와 『評批斥邪說』이 눈길을 끈다. 전자는 甲午更張(1894) 이후의 신식 公文書 양식(예컨대 會社 設立 관계 서류나 告發狀 등)을 수록한 책이며. 후자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서적이다.

20) 李建初가 개정한 『農政撮要』(鄭秉夏 著)는 東西洋의 農說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면, 上卷에 時候, 耕耘, 肥料의 효과가 설명되어 있고, 中卷에는 토양의 성질이 다루어져 있다. 그리고 下卷에는 農器, 選種, 兩麥交播法, 土綿耕作法, 烟草草耕作法 등이 실려 있다. 李建初의 주된 관심이 西洋의 농업 기술에 대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승려와의 교류 사실은 陸이 佛敎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음을 시사해 준다. 또 中人들과 잘 알고 지냈다는 점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일단은 陸이 신분에 얽매이지 않은 知面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陸用鼎의 학문적인 특징을 거론해 보자. 金允植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주목을 끈다.

靑山陸宜田 博聞有志之士也 其學根據經術 汎覽百家 尤有意於當世之務²¹⁾

즉, 陸은 經學을 자기 학문의 중심으로 삼았으나 그 밖의 동양의 여러 사상을 두루 섭렵하였다 한다. 그가 특히 관심을 둔 부분은 ‘當世之務’라 하였다. 當世之務란 당시의 한국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 특히 開化와 관련된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된 데에는 시대적인 상황이 적지 아니 작용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미 알려진대로 그가 살았던 19세기 후반은 朝鮮王朝의 말기로서 내외의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다. 내적인 면에서 볼때, 정치적으로는 老論의 장기 집권과 그에 따른 門閥의 폐단, 勢道政治의 출현, 官吏의 부정부패와 지방 행정의 마비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富의 편중과 派離民의 발생, 국가 재정의 고갈, 三政의 문란과 그로 인한 각 지방에서의 민란의 발생으로 조선 사회는 혼란의 와중에 있었던 것이다.²²⁾

그런가 하면, 외적으로는 東進해 오는 서양 세력에 대한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었다. 잘 알려진 바이지만,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朝鮮은 서

21) 『續陰晴史』上, 「沔陽行日記」, 高宗 28년 2월 17일條

22) 19세기 후반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논저가 참고된다.

金容燮, 「哲宗期 民亂發生에 대한 試考」(『歷史教育』1, 1956) pp. 83~100.

——, 『朝鮮後期 農業史研究(Ⅰ)』—農村經濟·社會變動一, 一潮閣, 1970.

李瑄根, 「勢道政治」(『한국사』15, 국사편찬위원회, 1975) pp. 13~77

金鎮鳳, 「農民의 抗拒」(앞의 책) pp. 78~152.

양과의 접촉이 부쩍 잦아지게 되었다. 中國을 통하여 서양 문명의 위력과 세계 도처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던 植民・通商 활동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朝鮮의 해안선에 자주 출몰하였던 異樣船 사건, 外國人 神父의 入國, 1866년(高宗 3)과 1871년(高宗 8)에 있었던 두 차례의 洋擾 등으로 말미암아 서양의 침략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²³⁾ 혼란하였던 사회 상황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된다. 사실 陸用鼎은 당 시대를 위기의 시대로 진단하고 있었다. 내외의 정세에 관한 그의 의견을 예로 들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方今天下之勢 萃在西洋 而彼西洋者 何謂者也 在於天下之極西 素不與中國相通 而以舟楫爲家宅 洋海爲平陸 鉏刀爲鋤禾 經略爲職業 其乍聚乍散忽往忽來 其狀無常有若鳬鴈之爲群者然 於天下萬國 有水之處 無不來泊… 舉天下萬國 無論誰某 莫敢抵當 其器械甚爲精利 其技術極爲奇巧… 舉天下駭駭然 將人于西國範圍中焉 究厥所然 卽天地以來 一大變故也 一大氣運也²⁴⁾

즉, 서양인들은 항해에 능하고 經略을 업으로 삼고 있는데, 그들의 무기와 기술 앞에는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될 형편이니 유사 이래 최대의 변고라는 것이다.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던 陸은 41세가 되던 1884년(高宗 21) 11월부터 시국 전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저술로서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이 작업은 4년 뒤인 1888년 12월에 일단 완결을 보게 되었다. 『宜田記述』이 다름아닌 그것이다.²⁵⁾ 그런데 이 책의 저술에 대하여

23) 이점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문이 특히 참고된다.

韓祐勛, 「開港當時의 危機意識과 開化思想」(『韓國史研究』 2, 1968; 『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 一潮閣, 1970) pp. 310~361.

——, 「19世紀末 韓國의 社會狀況」(『한국사』 17, 국사편찬위원회, 1973) pp. 22~70.

24) 『宜田記述』, 卷 3, pp. 46b~45a

25) 앞의 책, 卷 3, p. 87a 참조

는 「自敘」에,

宜田記述者 何也 記述宜田子之平日志藴也²⁶⁾

라 하여 저자가 평소 생각하던 바를 기술하였다고만 언급되었을 뿐, 저술의 동기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아래의 설명을 통하여 약간의 주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客曰 士生於當今之世 不知當今時事 可乎 請聞當今時事時勢 宜田子曰 子如願聞當今時事時勢 當先聞當今時局 可也... 然若余下國一鄉窮儒 未曾見用於當今 則當今時局事勢 烏有聞之 設有聞知 出位之思 言且不緊 無如閉口守默... 客曰 思不出其位而閉口守默 固是好事... 士未寧未有見用 然 如有見用 則當先有可以爲何如之 思職乃可也²⁷⁾

問答의 형식을 빌어 쓰여진 위의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다. 즉, 객이 陸에게 時事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當路者가 아님을 들어 대답을 피하였다. 이에 객은 다시 登用에 대비하여 미리 생각을 면밀하게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다는 것이다. 『宜田記述』을 저술하게 된 동기 중에는 앞으로 혹시 政府의 要路에 동용될 때를 겨냥한 점도 없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1891년(高宗 28) 2월에 쓰여진 金允植의 序文을 보면,

靑山陸宜田... 所著宜田設述三卷 大小凡五十九篇²⁸⁾

라 하여 본래는 3권 59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서는 집필이 끝난지 21년이나 지난 1912년 3월에야 陸의 다른 저서들과 함께 서울에서 간행되었다.²⁹⁾ 당시에는 본래보다 9편이 줄어 3권 50편으로 편찬되었다.³⁰⁾ 책의 말미에는 黃泌秀의 跋文을 실었다.

26) 앞의 책, 卷 3, p. 84a

27) 앞의 책, 卷 3, p. 44ab

28) 『續陰晴史』, 上, 卷 5, 「沔陽行日記」 高宗 28년 2월 17일 條

29) 『宜田記述』은 1912년 3월에 그의 다른 저서인 『宜田文稿』(2권 2책), 『宜田詩稿』(1권 1책), 및 『宜田續稿』(1권 1책)와 함께 서울의 普成社에서 自

Ⅲ. 『宜田記述』의 內容

『宜田記述』의 내용을 임의로 나누어 보면 人物論, 制度論 및 時局論의 셋이 된다. [표 3]은 본서의 내용을 주제별로 다시 묶어 본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人物論은 다루고 있는 주제의 성격상 士(臣)論과 君論으로 대별된다. 먼저 士(臣)論의 骨子を 일부 소개해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당시는 외국과의 교섭 통상 문제 등으로 草野에 묻힌 참된 선비의 발탁이 시급한 때였으나 朝廷의 등용책은 형식에 홀려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다.³¹⁾ 결과적으로 俗儒들만이 관직을 눈 앞에 두고 모진 경합을

費 刊行되었다. 鉛活字本으로된 이 책들이 출판될 당시 陸用鼎의 나이는 69세였으며, 서울 西部 仁達坊 宗橋 102 統 1 戶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宜田合稿』라 總稱되는 이 책들 중에서, 본고에서 살피게 되는 『宜田記述』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책들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宜田文稿』에는 序, 記, 說, 贊, 論, 賦, 傳, 墓誌, 行狀, 祭文, 雜著 등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雜著와 傳이다(雜著에 대하여는 註)31이 참조된다). 본서에는 모두 4편의 傳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平民 또는, 賤人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상당 부분이 門閥의 폐단을 논하고 아울러 兩班의 驕傲를 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흥미롭게 여겨진다. 다음으로 『宜田詩稿』에는 그가 평소에 지은 수십 편의 詩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밖에 『宜田續稿』에는 『宜田文稿』와 『宜田詩稿』에 빠졌던 수 편의 詩와 序, 記, 祭文, 雜著 등이 망라되어 있다.

- 30) 정확히 어떤 글이 무슨 이유로 제외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金允植의 序文에,

宜田記述三卷凡大小五十九篇 始之以記夢·說夢繼之以文斐·蒙幻·眞儒三傳(『續陰晴史』上, 卷 5, 「沔陽行日記」, 高宗 28 年 2 月 17 日 초)

라 있듯이, 記夢, 說夢 등의 수편이 원래는 『宜田記述』에 속하여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1912년의 간행본을 보면 위에 적은 몇편의 글이 『宜田文稿』 卷 2의 「雜著」 가운데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記夢」, 「說夢」, 「文斐傳」, 「蒙幻眞傳」이 바로 그것인데, 이들 5편은 아마도 처음에는 『宜田記述』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뒤의 편집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은 모두 꿈의 내용을 散文으로 기술한 형식을 취하였는데 비하여, 다른 50편은 모두 대화체로 되어 있어 서로 비교가 된다.

앞으로 본고에서 『宜田記述』이라 하면 1912년에 출판 간행되었던 3권 50책을 가리킨다.

- 31) 『宜田記述』 卷 1, p. 1a, 2a 참조

			10a-16a(13)	論君德	
			17a-18b (4)	合論君學君德與才智	
			46b-48b (5)	附賞罰紀綱知人用人知事處事	
			53ab (2)	論王伯	
制度論	行政制度論	地	19a-21b (6)	論治道	12항목 64면 「論封建井田肉刑之不可復」은 行政制度論, 禮樂·刑政論에도 해당된다.
			21b-23a (3)	正百官	
			23a-24b (4)	平州郡	
	財政論	地	24b-25b (3)	定田制	
			25b-27b (5)	理財用	
			49a-50a (3)	論封建井田肉刑之不可復	
	教育(官吏任用)論	地	28a-32a (7)	興學校	
			41b-46b(11)	察選舉	
	禮樂·刑政論	地	32b-35a (5)	明禮典	
			35a-37a (5)	立刑法	
			51a-52a (3)	論禮樂	
	軍事論	地	37b-41b (9)	講兵備	
時局論	原則論	人	70a-82b(26)	論命上	9항목 176면
			1a-23a(25)	論命下附性心	
			24a-34b(22)	論國命	
			35a-39b(10)	論天地運氣	
			40a-42b (5)	論灾祥	
			43a (1)	論治亂與君子小人多少	
	實際論	人	44a-77a(67)	論當今時局事勢附列國誌	
			78a-81a (7)	略論我東邦當今時政得失	
			82a-83b (4)	略論我東邦當今時務時宜	

별이게 되었다 한다.³²⁾ 온 나라안이 마침내 俗儒로 가득차서 聖人の 道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도 그 가르침을 후세에 전하기도 어렵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³³⁾

陸은 俗儒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俗儒者 其本地固與小人儒有間 而其見固滯 其才庸拙 沈蠱於性理訓詁之細 泊沒於禮文節目之末 其出言無非證引經術 而及其措諸事爲 則不但不能變通有或迷失大體 反不如豪俠奸猾之快割巧斷 貽笑於當世者 此爲俗儒也³⁴⁾

즉, 性理學과 訓詁學의 지엽적인 학설과 禮의 말단에만 집착하여 변통을 모르는 자가 곧 俗儒라 하였다.

바른 세상이 되려면 君子儒 다시 말하여 이상적인 선비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陸의 주장임은 물론이다. 그는 君子儒에 대하여,

君子儒者 懷忠信 尚廉恥 非先王之法言 不言 非先王之法服 不服 寧責於己 勿責於人… 博覽載籍 兼達時變 推知消長 明於治亂 好古而不泥於古 通今而不流於今 以實心行實事 無所爲而有爲 故其所行之美善 多在於人所不見 不知處者 此爲君子儒也³⁵⁾

라 하였다. 즉, 先王의 道(儒敎)를 충실히 따라, 옛것을 좋아하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지금것에 능통하면서도 지나침이 없는 신축성이 있으며, 일에 있어서는 實心으로 實事를 행하는 것이 君子儒라는 것이다. 君子儒가 사회를 주도해 나가게 되면 性理, 訓詁, 詞章, 兵家, 術數가 횡행하지 못하고 자연히 德化가 정치의 근본이 되는 세상이 건설될 수 있다고 한다.³⁶⁾

士(臣)論에 이어 임금(君)이 지녀야 될 태도와 그 책무를 말하였다. 이

32) 앞의 책, 卷 1, pp. 3b~4b 참조

33) 앞의 책, 卷 1, p. 13b 참조

34) 앞의 책, 卷 1, p. 5b

35) 앞의 책, 卷 1, p. 5a

36) 앞의 책, 卷 3, p. 85a 참조

에 따르면 옛부터 善政이 드문데, 그 이유는 임금된 자가 자기의 직책을 잘 몰랐거나 또는 王道를 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³⁷⁾ 임금의 직책이란 民庶(백성), 儒士, 宇牧(地方官), 方岳(一般官吏) 및 宰相이 각자의 소임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다.³⁸⁾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이 君德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만 賞罰과 紀綱이 제대로 되어 정치가 순조로와진다는 것이다.³⁹⁾

陸用鼎은 君德을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君德論」을 보면,

上下大小 何莫非以德爲成 而於人君爲最當焉 何者 非德無以來衆 非德無以附衆 非德無以御衆 非德無以容衆 非德無以鎮衆 非德無以服衆… 能有如是之德 然後可以安民也⁴⁰⁾

라 있듯이 임금이 德이 있어야만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요컨대 陸用鼎은 정치에 있어서의 인간의 도덕적인 측면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본질적으로 그는 儒敎의 신봉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陸은 실제로 통치 수단이 되는 각종의 제도에 대하여도 큰 관심을 두었던 것 같다. 여러 제도에 관한 그의 주장들을 분야에 따라 나누어 보자면 行政制度論, 財政論, 敎育制度(官吏任用)論, 禮樂·刑政論 및 軍事制度論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행정 제도론부터 하나씩 차례로 살펴 보자. 중앙의 관제를 논하면서 그는 불필요한 官署의 혁파와 官員의 감축을 주장하였다.⁴¹⁾ 한편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하여는 「平州郡」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然始自郡縣分創以來 其郡縣之定立等序 雖有高下 而地之大小 未有隨其等序 而稱

37) 앞의 책, 卷 2, p. 1ab 참조

38) 앞의 책, 卷 2, p. 2a 참조

39) 앞의 책, 卷 2, p. 48b 참조

40) 앞의 책, 卷 2, p. 10a.

41) 앞의 책, 卷 2, p. 23a 참조

停或有郡當其州 靡有序式 升降遷移 無所取資 且有大邑 至大難掉 小邑至小難存 然大邑實爲無幾 而太多殘薄小邑 無可與有爲 此不可不一番痛革而平均者也⁴²⁾

즉, 당시의 郡縣은 첫째로 等序가 바로 서지 않았고, 둘째로 大邑은 규모가 너무 큰 반면, 小邑은 또 너무 작아서 행정에 곤란한 점이 있으며, 세째로 小邑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는 첫번째 문제의 원인을 무원칙한 郡縣의 升降 조치로 돌리고 있다.

陸의 지방 제도 개혁안은 아래의 인용문에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依古公侯伯子男 己例設道州府郡縣五等 而道置伯·州置牧·府置尹·郡置守·縣置令 一伯之下 各爲建置二牧·四尹·八守·十六令而使之 道則道 各與相同 州則州 各與相同 府則府 各與相同 郡則郡 各與相同 縣則縣 各與相同 毋使越其等序 而有大小之差違也⁴³⁾

즉, 지방 조직을 5등급으로 편성하는데 각 道에는 2牧, 4尹, 8守, 16令을 두자고 하였다. 또 각각의 행정 단위 사이에는 等序가 엄수되어야 하고 같은 등급에 속하는 지역은 그 규모 역시 동일하게 조정되어야겠다는 내용이다.

결국 이 주장의 목적은 첫째로, 행정 단위 간의 上·下의 統攝을 확고히 하고 둘째로, 郡縣의 크기를 적정선에서 조절함으로써 小邑의 수를 줄이는 데 있었다고 믿어진다. 전국을 240개 지역으로 분할해야 된다는 의견(각 道에 30)이고 보면 당시의 지방 행정 구역 333개⁴⁴⁾ 가운데 93개의 철폐를 역설함에 다름 아니다.

勿爲多置殘薄小邑 以爲無益之費也⁴⁵⁾

라 하여 재정이 어려운 小邑의 설치를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아 더욱 분명

42) 앞의 책, 卷 2, pp. 23b~24a

43) 앞의 책, 卷 2, p. 24a

44) 『經國大典』, 史典 참조

45) 『宜田記述』, 卷 2, p. 24b

해진다.

陸의 재정론에서의 특징은 토지 제도에 관한 소견에서 찾아진다. 종래 理想의인 제도로 간주되어 온 井田制를 그는 반대하였다. 그 실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취지 또한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아래의 기사는 바로 이러한 주장을 담고 있다.

古之井田 不可行也 先儒或有以爲如有明君而行之 則可行也 此恐有不然… 若明君不作 而田政分排 至有自上行之 則其於戶口增減之際 其爲爭訟之端 可謂年年不絕 而吏緣爲奸徒 致騷擾滋事 民之不力公田尙矣 勿論兼爲其不力於私田 而民意國貧矣 何者 分田制產 既有定限 則智者必以無足爲而無所有爲 愚者素是無所爲 而無能有爲 智愚俱困矣⁴⁶⁾

즉, 만일의 경우 井田制가 실시되면 늘 변화하기 마련인 戶口의 수에 맞추어 토지를 고루 나누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爭訟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 한다. 또 智者나 愚者가 모두 일정한 양의 토지를 지급받게 되면 백성이나 국가 재정이 궁핍하게 되고야 만다고 하였다. 智者는 의욕을 잃게 되고 愚者는 본래 능력이 부족한 까닭이라 한다. 그는 均分이 인간의 본연의 心性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 같다. 「井田制」에 보면,

且貧富命也 物之不齊 物之理也 擊其東 則出其西 鎮其南 則壤其北雖人君此何可專擅乎 亦不可以爵祿威命 盡棄天下而抑制之 則無如開此一路循其自然 導之之爲善 而以爲歸屬之爲可也⁴⁷⁾

라 있듯이 재물이란 균등하지 않은 것이 본래의 이치라 하였다. 비록 임금 일지라도 자기 뜻대로 조정할 수 없으며, 자연의 이치대로 맡겨 두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다음의 사료이다.

然則 定今之田制 爲之如何 無如依今之賦稅法 行之之爲可 不必改定 而田之主 則

46) 앞의 책, 卷 2, pp. 24b~25a

47) 앞의 책, 卷 2, p. 25a

主其主 耕作分排 亦可任民 自爲之之爲無弊也⁴⁸⁾

즉, 田制를 개정할 필요가 없이 현재의 주인이 그 주인 노릇을 하고, 耕作·分配 역시 백성들이 하는대로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아무 폐단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陸用鼎은 권력에 의한 토지의 분배를 반대하였던 것이며, 당시 慣行되고 있던 地主制를 적극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는 稅制의 개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定田制」에 보면,

以今之賦稅論之 折長補短 則不過三十而稅一 是足以當之也⁴⁹⁾

라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土地稅를 1/30로 조정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1/30稅는 당시의 土地稅率에 비하면 무척 낮은 것이었다. 참고로 당시의 土地稅를 살펴 보면 적게는 3/10에서 8/10까지 되었다 한다.⁵⁰⁾

教育(官吏任用)論은 科擧와 薦擧制의 병행실시를 강조하였던 점에 그 특징이 보인다. 그 대강을 간추려 보면, 科擧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되(別試는 일체 폐지) 詞章을 지양하여 治道, 時務, 經義 및 兵略(武科)을 시험하여 매번 10~30명을 선발한다는 것이다.⁵¹⁾ 薦擧는 國學의 학생 가운데서 우수한 자를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국가에서는 이를 위하여 각급 행정 단위별로 학교를 설치하여 국비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였다.⁵²⁾

禮樂·刑政論을 살펴 보면, 禮樂도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같은 그의 입장은 「明禮典」에서,

48) 앞의 책, 卷 2, p. 25a

49) 앞의 책, 卷 2, p. 25ab

50) 金允植에 의하면 自營地는 3/10~4/10, 實田은 7/10~8/10에 달하였다고 한다(『續陰晴史』上, 卷 5, 「沔陽行日記」, 高宗 28년 2월 17일條).

51) 『宜田記述』, 卷 2, p. 32a, pp. 44a~46a.

52) 앞의 책, 卷 2, pp. 28a~32a.

原初制禮 無非適當如衷 而或有時異 而處不同 故不無法久而弊漸生焉亦理勢之然也… 蔽一言曰 大典大禮 大略易行 而不煩大擾也⁵³⁾

라 하여, 法이 오래 되면 점차 폐단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므로, 禮는 행하기 쉽고 번거롭지 않게 하여야 된다고 말한 데서 잘 나타나 있다.

刑政에 대하여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墨刑, 官刑 등의 肉刑을 폐지하고 대신 杖刑, 流配刑으로 대체하자는 그 내용이었다. 肉刑은 지나치게 잔인하여 刑을 실시하는 본래의 의도인 敎화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⁵⁴⁾

軍事制度에 대한 견해는 다음의 사료에서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今者則井田法 既不可行焉 兵農不得不判 而爲二也 兵農既判 則其取民充軍 自可別有一法 鍊習其軍 當以時宜法式可也 兵器亦以時宜器械可也⁵⁵⁾

이에 의하면, 첫째, 兵農이 일치되는 사회가 이미 붕괴되었으므로 새로운 充軍法을 제정해야 되며, 둘째, 군대의 훈련 방식을 신식으로 하여 時宜에 맞게 하고, 세째 무기도 또한 시대에 알맞은 신식의 기제로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군사 제도 전반의 개혁을 주장하였던 셈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陸用鼎의 제도론 가운데는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이 그 저변을 흐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불합리한 행정 제도, 과중한 稅制, 참다운 인재 등용과 거리가 먼 科擧制度, 형식에 치우친 禮法, 그리고 현실적으로 별 쓸모가 없는 군사 제도에 대한 비판이 다름 아닌 그의 제도론의 전제가 아니었나 한다.

陸의 제도론은 한편으로 출신 배경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는 兩班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중앙의 집권층과 연줄이 닿지 않았던 士班이었다. 門閥이 중시되던 당시로서는 관직에 높이 등용될 가능성이 매우 적었다 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형편이 새로운 교육 제도, 科擧制度 등을 구상하게

53) 앞의 책, 卷 2, p. 35a.

54) 앞의 책, 卷 2, pp. 35b~36a, pp. 49b~50a 참조

55) 앞의 책, 卷 2, p. 41b.

만든 하나의 요인이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승 李秉善의 영향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믿어진다. 李의 학문이 지녔던 실용적인 경향이 현실 문제에 대한 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자극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陸用鼎의 제도론은 몇가지 점에서 일부의 실학자들과 의견을 같이하는 대목이 있었다.

첫째, 郡縣制에 대한 그의 견해는 礪溪 柳馨遠(1662~1673)과 崔瑔煥(1813~1891)의 주장과 軌를 같이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州·府·郡·縣의 等序가 지켜져야 된다고 주장한바 있었다.⁵⁶⁾ 둘째, 그의 교육(관리 임용)론은 科擧와 薦擧制의 병용을 주장하였던 점에서 기본적으로 崔瑔煥과 일치하였다고 여겨진다.⁵⁷⁾

陸의 견해 가운데는 실학자들과 전혀 다른 면도 없지 않았다. 실학자들 중에는 兵農一致의 사회를 지향하는 이들이 많았으나⁵⁸⁾, 그는 그렇지 않았다. 또 陸은 토지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조차 부정하였던 것이다. 구 한 말에 그와 동일한 입장에 서서 관행의 地主制를 지지한 이들이 간혹 있었다고 하며 開化思想家들이 이 부류에 해당하였다고 한다.⁵⁹⁾

다음으로 陸의 時局論을 원칙론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그는 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은 天地의 運氣에 달려 있으며⁶⁰⁾ 이것은 대체로 災異로써 표현된다고 하였다.⁶¹⁾ 하지만 災異에는

56) 이 점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鄭求福, 「礪溪 柳馨遠의 社會改革思想」(『歷史學報』 45, 1970) pp. 12~24.

白賢淑, 「崔瑔煥의 『顧問備略』, 『顧問備略』(西江大人文科學研究所刊, 國學資料 4 輯)의 해제, 1984) p. 13.

57) 白賢淑, 앞의 글, pp. 17~18 참조

58) 주지하듯이 李瀾(1681~1763)은 限田論, 柳馨遠(1622~1673)은 均田論, 그리고 丁若鏞(1762~1836)은 閭田制를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兵農一致를 전제로 하였다(李載襄, 「重農의 制度改革論의 擡頭」(『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1974) pp. 185~241 참조).

59) 金容燮, 「甲申·甲午改革期の 開化派의 農業觀」(『韓國近代農業史研究』, 一潮閣, 1975) pp. 304~325 참조.

60) 『宜田記述』 卷 3, p. 28b, 39b.

常과 變이 있기 때문에 災異의 본 뜻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盡人事하는 것만이 결국 최선의 방법이라 하였다.⁶²⁾

원칙론에 이어 陸用鼎은 당시의 朝鮮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논구한 이 부분은 말하자면 시국론 가운데서도 실제론인 셈이다. 여기에 그는 서양 문명에 대한 소개와 함께 開化에 대한 입장을 밝히었다.

서양 문명을 소개하는 부분은 세계의 정세, 서양의 과학 기술의 우수성, 지구(지리)론, 각국의 文字, 정치 체제, 종교, 기후와 인종 및 曆法과 紀年 등을 하나씩 차례로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각 항목에서 특징적인 내용만을 옮겨보자. 세계의 정세를 살피면서 陸은 서양 여러 나라가 중국과 通商을 하게된 경위를 설명하고, 이들 나라의 침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⁶³⁾ 서구의 침입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단은 그들이 발달된 과학 기술을 소유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하여 그는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火船, 鐵路, 電報, 水雷, 火砲, 氣球, 測天鏡(천체망원경) 및 顯微鏡 등의 각종 기계를 열거하면서 각각의 성능과 용도를 설명하고 난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大抵此等 機器造作 無非自彼光之學·聲學·重學·化學中由出解得來 所謂聲·光·重·化學等諸學 卽物理之學 而總之爲術學也⁶⁴⁾

즉, 위에서 열거하였던 각종 기계의 조작이 光學·聲學·重學·化學에서 나온 것이며, 이들 學은 物理學(자연 과학)이라 할 수 있고, 총괄하여 말하면 術學이라 한다는 것이다. 陸이 技術과 科學을 일단 구분하여 이해하려 하였으며, 과학을 다시 몇개의 學으로 분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地球(地理)論을 보면, 먼저 지구가 球形이라는 사실이며 지구의 공전 및 자전, 지구의 크기와 대기권에 대한 설명, 5大洋 6大洲의 명칭, 세계 각

61) 앞의 책, 卷 3, p. 40ab.

62) 앞의 책, 卷 3, p. 34a.

63) 앞의 책, 卷 3, p. 46b.

64) 앞의 책, 卷 3, p. 49a.

국의 이름 및 각 대륙의 지리적 특징 등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 대기권에 대한 설명을 보면,

又言地氣之升高 不過一千三百丈 過此以往 則地之氣息 而人物不能生存化育焉⁶⁵⁾

라 하여 지상에서 1,300 丈을 올라가면 공기가 끊어지고 여기에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각국의 文字, 종교, 정치 체제, 기후 및 曆法·紀年 등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일일이 적고 있다. 예를 들어 文字에 대한 설명을 보면,

漢文之用 不過亞細亞洲 而亞細亞內 亦未盡行 羅馬文字之行 最廣且遠 羅馬文 又分而爲變 有英字·法字之不同焉… 諸番文之橫豎雜錯 無異吾東之諺字樣焉 羅馬文之行 雖廣且遠 亦一此類 而其爲用廣遠 亦如一諺書之易曉易學故也⁶⁶⁾

라 하여 漢文의 사용이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문자는 로마 字이며, 이 로마字에서 영어, 불어 등의 문자가 파생되었다고 하였다. 또 이들 서양의 문자는 그 구조상 한글과 같다고 언급하고, 로마 字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유를 그것이 한글과 한가지로 배우기가 쉽기 때문이라 하였다. 人種에 대한 설명에서는 세계 각국에 수많은 인종이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중 흑인 종에 대하여,

就中 黑人一種 多產於阿非利加洲 而其人愚馴且醜 無艾羈慮 故外國人賣得 而奴畜之 終身供役 不怨不逃 故世謂之黑奴⁶⁷⁾

라 하여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많이 살고 있는데, 외국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있다 하였다.

또 기후를 설명하면서, 지구상의 기후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그 이유는

65) 앞의 책, 卷 3, p. 50a.

66) 앞의 책, 卷 3, p. 54b.

67) 앞의 책, 卷 3, p. 56b.

다름 아닌 地球의 운행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 설명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風氣有四時恒燠之處 四時恒寒之處 恒爲中平之處 四時各循其序之處焉 如以今地行之說 考究而推之 以地行之近日處爲燠 遠日處爲寒之意 則地行之軌 道原有本定 遠近於圓日處也 亦似不無恒燠·恒寒·中平·循序之不同焉 故歐洲 雖在極西北 而風氣亦如中國無異者以此 而但晝夜時辰有不同焉⁶⁸⁾

즉, 한대와 난대 및 온대 기후가 있는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 궤도에 따라 생겨난 자연 현상이라는 것이다.

서양 문명에 대한 각종 지식을 소개하는 것 외에도, 『宜田記述』에는 陸用鼎의 開化觀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開化의 개념, 개화의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 章에서 이를 보다 상세히 다루어 보겠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宜田記述』은 人物論, 制度論 및 時局論으로 나누어 지는데, 人物論에서 陸은 인간의 도덕적인 면을 정치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制度論에서는 현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그의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제도개혁안은 18·19 세기의 實學者들과 一脈相通하는 점이 없지 않았다. 이것은 그의 思想의 實學과의 연관성을 짐작하게 한다.

Ⅳ. 陸用鼎의 開化思想

이미 알려진 대로 急進開化派와 穩健開化派는 「開化」에 대하여 그 개념을 달리 인식하였다. 전자는 金玉均(1851~1894)과 朴泳孝(1861~1939)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理念과 制度의 측면에서 개화를 이해하였다. 반면에 온건 개화파의 개화에 대한 개념은 단지 서양의 기술 수용을 뜻하

68) 앞의 책, 卷 3, pp. 55b~56b

었다.⁶⁹⁾

陸用鼎의 경우는 위의 두 입장 가운데 어느 편에 해당하였을까. 먼저 '개화'에 대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부터 알아 보면,

蓋開化之義 爲何莫是 開是開物之開也 化是化民之化也耶⁷⁰⁾

라 하여 개화의 뜻을 「開物化民」이라 하였고, 또한

開者 開發之開 化者 變化之化也⁷¹⁾

라 하여, 「開發變化」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여기서의 「開物化民」이나 「開發變化」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였을까.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우선 開化에 대한 그의 입장을 좀 더 상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이에 대해서는,

往在丙子 日本之來通我邦也 我邦受之… 時漢城南山洞有一生員 聞之發論 曰我東土大夫之國 何何以西法汙穢乎 寧爲國破家亡 義不可受也云云 其言則固可嘉 其志則國可尙 而此猶未盡達義之爲義也… 其國破家亡於當身 此爲何快事 何能事… 如欲斥歐者 當先有滅歐之策 然後乃可發此等言也 其空言壯談 有何効益乎⁷²⁾

라 듯이, 南山洞의 한 生員을 예로 들어 서양의 침략을 막아낼 방법도 마련하지 못한 채 무조건 西法을 반대하는 이들을 陸은 맹렬히 비난하였다. 요컨대 그는 守舊派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 점은 다음의 글에 보다 분명히 나타나 있다.

自夫交通西洋以後 各國有守舊開化之論 既爲交通西洋 則不得不有隨時應變之變法 既有變法 則人之可者謂之開化 人之不可者謂之守舊⁷³⁾

69)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의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는 아래의 논문을 참조.
李光麟, 「俞吉濬의 開化思想」(『歷史學報』, 75·76 合輯; 『韓國開化思想研究』, 一潮閣, 1979, p.88).

70) 『宣田文稿』卷 2, pp. 54b~55a.

71) 『宣田記述』卷 3, p. 60a.

72) 앞의 책, 卷 3, p. 74b.

즉, 이미 서양과 통상을 시작하여 變法을 한 이상 開化는 당연한 것이며, 守舊는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였던 開化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가.

「論當今時局事勢」에 보면,

雖爲開化 一從變亂 而無其實者 亦亡其國 此爲當今之時勢也⁷³⁾

라 하여 개화를 한다 해도 변란만 일삼고 실속이 없으면 나라를 망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陸이 개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중시하고 變亂을 배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開化라는 용어의 개념을 일정한 범위내에 한정하여, 그 범위를 지킬 경우에는 실속이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면 變亂이 있게 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急進開化派 즉, 開化黨에 대하여도 역시 비판적이었다.

桂田申相公(應朝)嘗曰 我不是不欲開化 曾見時輩之出洋者 舉多新進年少喜事微功 奔競莫甚 一乘火輪 其心已變 此等何可與有爲寄任乎 申相之言蓋傷時憂世之意 而然 開化黨中人等 蓋多此類⁷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左議政의 벼슬을 지낸 申應朝(1804~1899)의 말을 빌어 開化黨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는 功을 세우기를 좋아하여 출세를 위하여 獵官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또 守舊派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기도 하였다.

守舊者之論開化者曰 喜新好奇 而不率其舊 則必亡之道也⁷⁵⁾

즉, 開化論者는 새롭고 신기한 것만을 좋아하고 옛것을 따르지 않으므로 반드시 망하고야 말 것이라고 하였다. 開化論者란 그 내용상으로 보아 여

73) 앞의 책, 卷 3, p. 60a.

74) 앞의 책, 卷 3, p. 60a.

75) 앞의 책, 卷 3, p. 75a.

76) 앞의 책, 卷 3, p. 60b.

기서는 急進開化派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앞에서의 '變亂만 일삼고 실속이 없는 開化'란 결국 급진 개화파를 염두에 둔 말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 밖에도 開化黨에 대한 그의 불만은 다음의 사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國家自夫往丙子 日本來通以後 始將營參用西法 于今已爲十餘年矣 而衆民則漠然不知 非但衆民 士大夫亦然 非但士大夫 公卿又亦然 上之所與議事 而事者 不過狎昵近侍 幾許年少而已云云 第未知果其然耶 余聞良裘不可以一狐腋之所製... 一國大政令 亦不可以幾許昵近年少之輩 所可譏圖者也⁷⁷⁾

즉, 丙子修好條約(1876)이래로 나라에서는 開化 정책을 펴왔으나, 王을 가까이서 모시는 몇몇 年少한 이들이 관여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이를 반대하였던 것이다. 年少한 이들이 누구라고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金玉均을 비롯한 開化黨 인사들을 지칭하였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그는 1884년(高宗 21) 甲申政變의 주체였던 開化黨을 반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화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주된 동기 중에는 이러한 자신의 開化觀을 뚜렷이 밝히고자 하는 의도도 얼마간 있지 않았나 여겨진다.

守舊派와 急進 開化派를 모두 비판하였던 그의 開化觀은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그는 東道西器論者였다.

形而上之爲道 形而下之爲器 道則世之儒者 或有知其當有常變 而不知器之有常變... 彼西人方今天地之行運氣數 應時而興焉 則其對舉而抑制之者不可無升降裁度 隨時而立法也 今吾之立法 不是從彼法 乃是道則顧自如 而少可變者其器也⁷⁸⁾

위를 보면, 形而上에 해당되는 道 다시 말하여 東洋의 道(儒敎)는 그대로 지키되, 形而下인 器(技術)는 西洋에서 배워 바꾸자는 것이었다. 西洋의 技術을 배우자는 그의 견해를 직접 인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77) 앞의 책, 卷 3, p. 79ab.

78) 앞의 책, 卷 3, p. 67b.

若有制彼(西洋)者 當學得其勝於彼之技術 而但恨無其可爲耳 今者之參用西法 要爲權時之意也 不得已而行之者也 此爲自保自全之道也 然則所學乎西人者 何也 曰術學技藝器械而已也⁷⁹⁾

즉, 서양의 法을 參用하는 것은 自保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서 배울 것은 오직 과학 기술 뿐이라는 것이다. 陸의 개화론이 서양의 기술의 수용만을 주장하였던 온건 개화파와 軌를 같이하고 있음이 분명해진 셈이다.

다음으로 開化의 대상에 대한 陸의 견해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특히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銃, 火砲, 水雷 등을 비롯한 軍事 분야, 火船, 火車, 電報 등의 교통·통신 분야 및 織造機와 礦山 개발에 필요한 여러 기계 설비 즉, 산업·경제 분야의 기술이었다.⁸¹⁾ 또 이들 기술의 원활한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어를 비롯한 化學·光學 등의 신지식의 교육⁸¹⁾과 해외 유학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⁸²⁾ 그런데 이점은 개화 사상가들에게 공통적이었다고 여겨진다.⁸³⁾

그러면 陸의 개화 사상이 다른 온건개화파의 사상가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첫째로 주목되는 것이 기독교 즉, 천주교와 개신교(耶蘇敎)에 관한 그의 태도이다. 기독교에 대한 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비판적인 것이었다. 예컨대 「論異端」에서,

79) 앞의 책, 卷 3, p. 66a.

80) 앞의 책, 卷 3, pp. 61b~62a.

81) 앞의 책, 卷 3, p. 76aab.

82) 海外 游學에 관한 그의 의견은 「爲人子者 不可以游學外國論」에서,

早先略通東夏經史 使略聞先王之正道 知其事親事君之大本 兼達于歷代治亂事變所以然之 大端以立其根基 然後乃乎西歐技術讀 充而文飾之 則其技術可爲有本之技術(『宜田文稿』, 卷 1, p. 48).

이라 하여, 해외 유학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儒敎의 인 素養을 갖추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83) 李光麟, 「開化思想研究」(『改訂版 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69) pp. 31~57 참조.

(天主·耶蘇敎) 其云爲不能無疑焉 如無父而生 五餅二魚能飽數千人 指水變酒 釘死三日復活 四十日升天云云卽是也⁸⁴⁾

라 있듯이, 童貞女(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든지, 다섯개의 떡(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수천명을 배불리 먹였다는 이야기, 또 물을 술로 만들었다든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지 사흘만에 부활하고, 40 일 만에 하늘에 올랐다는 등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면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陸에게는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일면도 있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의 十戒를 설명하면서,

天主·耶蘇 其十戒垂敎 出於純誠⁸⁵⁾

이라 하여 그것이 純誠에서 나왔다고 하였고 또,

其國(西洋)所尙敎法 天主·耶蘇二岐也 而蓋以愛爲宗 專以並生不殺爲主 大略其國亦有三綱五常之法 而其法專出於彼之敎中也⁸⁶⁾

라 하여, 서양에도 三綱五倫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나왔다는 것이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기독교를 포함한 이른바 他道(異端)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기까지 하였다.

我不是以中華聖人爲高 外國聖人爲卑 以其所道有異也 不是以吾道爲最善 他道爲未善 以其所見有不同我⁸⁷⁾

즉, 중국의 聖人(孔子, 孟子등을 뜻함)만 높고 外國의 聖人은 낮다든가, 吾道(儒敎)만 善하고 他道는 나쁘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였기에 기독교의 비판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즉,

84) 『宜田記述』 卷 1, p. 32ab.

85) 앞의 책, 卷 1, p. 32a.

86) 앞의 책, 卷 3, p. 48b.

87) 앞의 책, 卷 1, p. 34b.

天主・耶穌等敎 近始得見東來敎書略干 以此究觀 實無可曉… 此當待異日 與西洋一高士 面對相辯 然後可以解惑 不可以東來今敎書 準信者也⁸⁸⁾

라 하였듯이, 당시 朝鮮에 전래된 기독교 敎理 서적만으로는 기독교를 잘 알 수 없고 후일 서양의 高士를 만나게 되면 의혹을 풀어보겠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점은 당시의 온건 개화파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점이었다. 일례로 온건 개화파의 중심 인물의 하나였던 金允植만 하여도 기독교를 철저히 배척하는 입장이었다.⁸⁹⁾

둘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陸이 서양의 정치 체제 가운데 하나였던 君民共主(立憲君主制)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각국의 정치 체제를 君主(制), 民主(制), 君民共主(制)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그는 民主(制)와 君民共主(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소감을 피력하였다.

民主雖似美善 而民之無知 或有不知自己利害尙多 況安可參決一國大計乎不可一聽彼之喧動 就中君民共主 最爲未善 而然此意亦已寓在於君主之中焉⁹⁰⁾

즉, 민주제가 좋은 제도인듯 싶지만 일반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만큼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불가하며, 君民共主制야말로 가장 좋은 제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입헌 군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쪽은 급진개화파이거나 또는 兪吉濬과 같이 서양의 理念과 制度를 중시하였던 개화사상가들이었다. 이미 알려진 대로 兪吉濬의 경우를 보면, 그의 저서 『西遊見聞』에서 ‘人君同治’ 또는 ‘君臣共治’라 하여 立憲君主制를 토대로 한 근대 국가를 세워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⁹¹⁾

88) 앞의 책, 卷 1, p. 69ab.

89) 金允植을 비롯한 온건 개화파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李光麟, 「開化派의 改新敎觀」(『韓國開化思想研究』, 一潮閣, 1979) p. 55b.

90) 『宜田記述』, 卷 3, p. 55b.

91) 李光麟, 「兪吉濬의 開化思想」(『韓國開化思想研究』) pp. 85~86 참조.

물론 俞吉濬에 비하여 陸은 입헌 군주제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였을 것이다. 俞는 직접 서양을 여행하고 유학까지 하였던 데 비하여, 陸은 당시 朝鮮에 전래된 책자를 통하여 얻은 지식이 고작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입헌 군주제에 관한 이해는 다음과 같았다.

君民共主者 如荷·英·西葡·日本等所行是也… 君民共主者 每有一政君民上下齊會相議 而取從其公評之論 故曰君民共主也⁹²⁾

즉, 네덜란드와 영국,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서, 君과 民이 함께 의논하여 행하는 정치 제도라는 것이다. 그의 입헌 군주제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렇기는 하나 先王의 法(東道)을 주장하였던 그가 서양의 정치 체제 가운데 하나였던 입헌 군주제를 가장 뛰어난 정치 제도로 인정하였다는 점은 특기할만 하다.

세제로 그는 개화 시책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계몽하여 호응을 얻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今之將營參用西法 可謂得當 而然此乃國之大變更也 此何不其始 便爲明曉快諭 以此出於其不得已之所以然 于八道西都 坊坊曲曲之衆民 而只爲自上行之而已乎… 民何嘗有知 民何足與有爲 雖其告知 固無爲益 而然其在撫衆鎮衆不可無詢衆從衆 與衆其和者也 此乃爲存國體 示廣君德⁹³⁾

즉, 西法을 參用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지만, 왜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리지 않는가, 만일에 국민들이 그것을 알아도 전혀 이익됨이 없다 할지라도 꼭 알려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들과의 화합이 이루어져서 나라를 보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國政을 알려야 된다고 주장하였던 점이 흥미롭다 하겠다.

그는 국민에 대한 개화 시책의 계몽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짐작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各國長民者 將營電報 而先立一電桿于國中 則衆民譁然衆聚 而仆之斫之毀之 作亂

92) 『宜田記述』, 卷 3, p. 79ab.

93) 앞의 책, 卷 3, p. 76ab.

至死 而靡悔焉 各國學設續 英公館選生從 置師長 教授西法者只爲其學得 西歐之言語文字 與諸般學術也 而頑民無知 指以爲天主學所教之堂 至有群聚 而燒毀之變 種種相續焉… 此無他是專在於爲上者之曾不披露其心 結信其民之故也 甚哉 東洋各國之衰微也⁹⁴⁾

즉, 위에서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시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면, 통신 시설이나 학교 시설등이 파괴당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요약하면 대강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陸用鼎은 본질적으로 온건 개화파에 속하는 개화 사상가였다. 그의 개화에 대한 이해는 東道西器論, 다시 말하여 儒敎의 이념을 그대로 지키면서, 여기에 서양의 발달된 기술을 수용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볼 때 그의 개화사상은 상당히 진보적인 일면을 가지고 있었다.

V. 맺 음 말

1870년대만 해도 開國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러던 것이 1876년의 開港 이후로 외국과의 교섭이 잦아지면서, 서양의 앞선 문명을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점차 높아갔다.

陸用鼎은 바로 188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지방 출신의 개화 사상가였다. 그는 忠淸道 靑山縣에 거주하였으며, 신분상으로는 士班, 구체적으로는 武人 집안 출신이었다. 그의 사회적 신분은 대체로 實學에서 開化思想으로 연결되는 과도기의 사상의 대표격인 崔暹煥(1813~1891), 姜瑋(1820~1884)등과 비슷한 처지였다. 이러한 출신 배경은 門閥이 출세를 좌우하

94) 앞의 책, 卷 3) p. 76ab.

였던 당시로서는 별로 유리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 점은 현실 사회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보다 비판적으로 만든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의 師友 관계를 보면, 그는 李秉善(?~1874), 任憲晦(1811~1876), 및 朴(某)先生을 차례로 師事하였는데, 이 가운데 李秉善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것 같다. 사실 그는 유년 시절로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이나 李秉善에게 수학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실용적(경우에 따라서는 實學이라 할 수 있는)인 학풍을 이어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와 교제하였던 이들로는 金允植, 魚允中을 비롯한 數名의 온건 개화와 사상가와 中人, 僧侶 등 많은 인물이 있었는데, 특히 金允植 등 온건 개화파들의 존재가 주목된다 하겠다.

아마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출신 배경과 師友 관계에 힘입은 것이겠지만, 학문적으로 그는 관념적인 문제보다는 현실 문제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학문은 현실 비판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19세기 후반의 朝鮮 사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긴박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우선 내적인 면에서 볼때 정치, 경제, 사회의 제 분야에 수세기 동안 누적되어온 모순이 극심한 상태에 달하였으며, 외적으로는 서양의 침략 위협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같은 시대 상황하에서 그는 당시의 지식인들이 대개 그러하였듯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1884년 11월 甲申政變이 있고 나서 시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 되었는데, 이 작업은 4년 뒤인 1888년 12월에 『宜田記述』 전 3권으로 완결되었다. 그 저술동기는 짐작컨대 후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관리 등용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開化黨의 개화 시책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도 다소 있지 않았나 한다.

『宜田記述』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人物論, 制度論,

時局論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人物論에서 그는 정치에 있어서 인간의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制度論에서는 행정, 재정, 교육, 예악·형정 및 군사의 각 방면에 대하여 현행의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는 일부 實學者들과 견해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어 그의 사상이 實學과 연관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전혀 다른 면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전자에 속하는 것은 주로 지방 행정 제도와 교육 제도에 관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후자는 토지 제도에 대한 것이었다. 대개의 實學者들이 兵農一致를 지향한 사회 개혁을 주장하였던 점에 반하여, 그는 이러한 토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그는 당시의 사회 관습이었던 지주제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그는 時局論에서 서양 문명의 이모저모를 소개하고, 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아마도 단순한 제도의 개혁만으로는 당시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 즉, 서양의 침략 위협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개화에 대한 그의 견해는 서양 문명의 이면적인 측면을 도의시하고, 그 기술의 수용만을 주장하였던 점으로 보아 東道西器論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개화 사상은 온건 개화파에 속한다 하겠다. 사실 그는 이미 앞서 살핀대로 온건 개화파 인사들과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개화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군사, 교통·통신, 산업·경제면에 소용이 되는 각종의 서양 기술을 수용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어학과 신지식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그의 개화 사상에 있어서 특징적인 면은 기독교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이해, 입헌군주제에 대한 깊은 관심, 개화 시책의 홍보와 禮法의 변통을 주장하였던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그의 개화 사상은 온건 개화파에 속하면서도 그 중에서는 비교적 진보적인 편이 아니었나 한다.

그런데 지방의 無名 학자나 다름이 없었던 陸用鼎이 이러한 개화 사상

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단 한번도 외국을 왕래한 적이 없고, 관직에 등용되지도 못하였던 지방의 일개 지식인이 이와 같이 일정한 開化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開港 이후 두드러졌던 開化 관계 서적의 활발한 受容과 流布에 적지 않게 힘입은 것으로 해아려진다.⁹⁵⁾ 이렇게 볼 때 1880년대에는 단지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였던 지식인들 가운데에도 서양에 관한 식견을 가진 이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陸用鼎과 같은 지방 출신의 開化思想家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라고 믿어진다.

95) 開化思想家에게 영향을 준 주요한 외국의 서적에 대하여는 특히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李光麟「開化思想研究」(『改訂版 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66) pp. 33-46.